

후가쿠 바람 동굴

후가쿠 바람 동굴은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 안에 있는 용암굴로 국도 139 호선을 따라 노선 버스로도 쉽게 갈 수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동굴로 내려가는 첫 번째 계단을 제외하면 경사가 비교적 완만해서 길이 201m의 동굴 내부를 아이들도 안전하게 걷고 15 분만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천장은 비교적 높지만 일부 머리 위를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마그마가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동굴의 벽면이 벽지를 감아 빼내듯 벗겨져 떨어진 ‘용암선반’ 등 지질학적으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는 자세하게 해설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3℃로 안정된 이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는 씨앗과 곡식, 누에치기용 선반이 한 세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반은 이제 더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비교적 최근인 20 세기 중반까지도 후가쿠 바람 동굴은 천연 냉장고 역할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이 동굴 안에 저장된 얼음이 시원함을 찾는 사람들에게 판매되거나 열을 내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누에는 쌀쌀한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면 봄이 왔다고 착각해 실을 토해내고 고치를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누에를 굴에 저장하면 일년 내내 명주실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